



김종성 | 여행작가
(sunny21@daum.net)

섬진강 무덤이들, 보기만 해도 배부르네

여행날짜 : 2012년 10월 3일

TV 뉴스에서 가을 산의 단풍 절정 시기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걸 보니 깊어가는 가을을 실감하게 된다. 더불어 가을 들녘의 벼 익는 소식도 전해주면 더 좋았겠다 싶은 건, 자전거 여행을 즐기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벼들이 노랗게 익어가는 황금빛 평야는 또 다른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세 계절을 지나면서 인간의 정성과 노고를 통해 생겨난 풍경이기에 감동까지 더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멀리서 보면 조금씩 채색을 달리한 모자이크 작품 같은 가을 들판 사이로 자전거 타고 달리는 기분이 색다르고 좋아서 그런지 나는 가을 산의 단풍보다 가을 들판의 금벼들이 더 좋다. 더욱이 벼가 익어가는 가을 들녘을 만나러 가는 건 한 날 볼거리를 구경하러 가는 여행 이상의 의미가 있다. 식량 자급률이 30%도 안 되는 이 분야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의 나라에 그나마도 한미 FTA로 값싼 수입쌀이 밀려들 예정인 이때, 수천 년간 우리를 먹여 살려온 금싸라기 땅과 수고하시는 농부, 농모님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아름다우며 감동이 있는 가을 평야가 펼쳐져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섬진강변이다. 섬진강 오백리 물길 중 가장 너른 들을 자랑하는 악양면 평사리 들녘이 그곳으로, 얼마 전 돌아가신 박경리 선생님의 대하소설(토지)의 배경이기도 하다. 게다가 고갯길이 없는 평탄한 섬진강변 길은 자전거 여행자에게 주변 풍광을 감상하고 음미

하며 달릴 수 있는 편안함과 여유로움까지 선사해주는 고마운 여행지이다.

서울 남부버스터미널에서 애마 자전거와 함께 섬진강가에 있는 화개 버스터미널을 향해 떠나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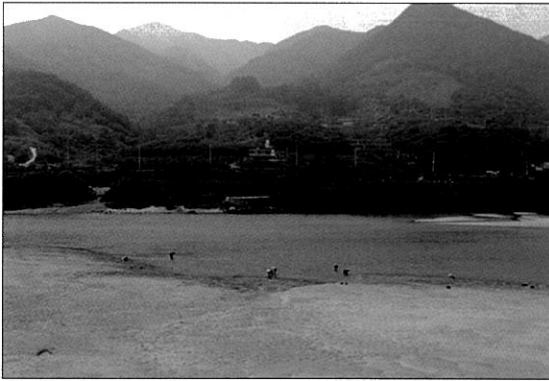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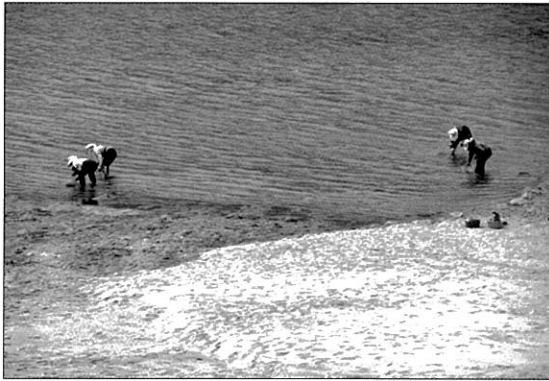
강물 위로 흐르는 섬진강변의 고즈넉한 가을

화개 버스터미널에 내리자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화개장터가 맞닿는다. 이른 아침이지만 부지런한 상인들은 벌써 나와 손님 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아침식사로 재첩국을 개운하게 먹는 중에 대장간에서 들려오는 망치질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온다. 시골벽적인 장터 분위기도 좋지만 이렇게 고요한 아침 시장 분위기도 괜찮구나 싶다.



대장간 아저씨의 망치질 소리가 아련히 들려오던 화개장터의 아침

이처럼 가을날의 섬진강은 어느 곳이나 고즈넉하다. 강변 길이자 한적한 19번 국도를 따라 평사리 들판을 향해 강물이 흐르듯 천천히 페달을 밟는다. 길가에는 지난 봄 짧지만 찬란하게 피어났을 오래된 벚꽃나무들이 화장을 지운 도시의 여인들처럼 생경한 얼굴로 도열해 있다. 멈춘 듯하기도 하고 흐르는 것 같기도 한 강물 위로 웬 아낙네들이 모내기 하듯 허리를 숙이고 물질을 하고 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모래톱 속에서 작은 조개를 걷고 있는데 바로 아까 먹었던 섬진강의 명물 재첩이다.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강물에서 사는 재첩을 걷는 섬진강의 아낙네들

약양면 평사리('무덤이들'이라고도 한다) 이정표를 따라 왼쪽길로 들어서니 고즈넉한 강변 풍경이 급세 고요한 농촌마을로 바뀐다.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느낌에 고개를 더 들어보니 저 앞에 금벼들이 황금물결처럼 출렁거리고 있다. 와~ 이곳이 평사리 들판이구나 한눈에 알 것 같다. 소설처럼 만석지기 두엿은 능히 널만한 넉넉한 들녘이다. 들판 초입에는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허수아비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

다. 허술한 모양새의 허수아비들이지만 구경 나온 유치원 아이들은 '깹 깹' 소리를 지르며 허수아비들 사이로 마냥 뛰놀고 있어 웃음을 짓게 한다.



섬진강 오백리 물길 중 가장 너른 들을 자랑하는 곳이 평사리 들녘이다.

보기만 해도 배부른 알알이 익어가는 벼들 위로 어깨를 다정히 기대고 있는 두 그루의 소나무가 한데 어울려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내고 있다. 잡식동물인 인간의 먹거리를 위해 피를 흘리며 희생되는 소, 닭, 물고기들과 달리 쌀은 그런 잔인함과 죄책감에서 자유롭다. 가을 추수가 한창인 평야에서 면 오히려 평화를 느끼게 된다. 생전의 박경리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로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중 하나가 "마른 눈에 물들어가는 소리"였다고 한다. 내게도 그런 소리를 들리면 벼와 낱알 사이에서 들려오는 소슬한 가을바람 소리라 할 정도로 들판의 바람소리가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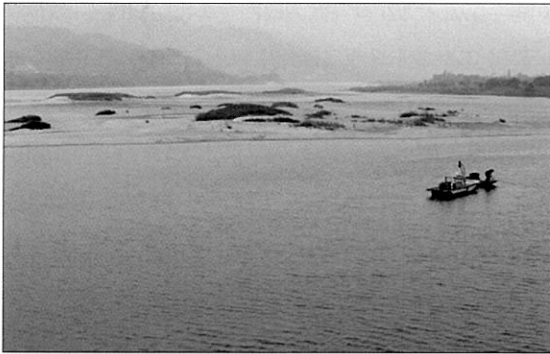
알알이 익어가는 벼들 위로 '부부송'이라 불리는 소나무가 다정하게 서있다.

약양면 마을을 향해 이어지는 길은 '토지길'이라 하여 평사

리 들판~동정호~최참판대~조씨 고택~취간림~악양루를 거쳐 다시 평사리까지 돌아오는데, 약 10km의 거리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기도 부담이 없다. 길을 몰으려 악양면 동네 아주머니들의 사랑방적인 '새마을 미용실'에 고개를 내밀었다가 '취간림'과 조금은 특이한 동네 이름에 담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마을 곳곳에 임금님 진상품이었다는 악양 대봉감이 탐스럽게도 익어가고 있는, 섬진강이 주는 혜택을 한 몸에 받은 곳이다.

목마름을 해결해준 '배고울' 하동의 배맛

남해바다가 점점 가까워지는 섬진강 하류를 향해, 큰 재래시장과 기차역, 하동 8경 중의 하나인 '하동송림'이 있다는 하동읍을 향해 강변길을 부지런히 달려간다. 섬진강은 예로부터 '다사강'(多沙江)이라 불렀다더니 하류쪽으로 내려 갈수록 정말 강가에 고운 모랫벌이 많다. 모래 없는 강인 한강이 흐르는 도시에 사는 나로서는 더욱 이채롭고 귀하게 느껴지는 풍경이다.



바다가 가까운 하류로 갈수록 섬진강이 모래톱과 함께 넓게 펼쳐진다.

어느 사이엔가 강변길가에 정성스럽게 종이로 싼 큼지막한 배들을 파는 노점들이 연달아 나타난다. 먹음직스런 배들을 봐서 그런지 갑자기 목이 말라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어느 노점 앞에 멈춰서 혹시 배 한 개만 사도 되냐고 물어보았다. 웃음으로 허락해준 초로의 아주머니는 아기 얼굴만한 배를 건네주시며 천 원만 내라고 하신다(종종 있는 자전거 여행자들의 특별한 혜택이다). 배가 하도 커서 과즙으로 갈증도 해

소되고 밥 한 그릇 먹은 것처럼 배가 다 부른다.



과즙이 많아 하나만 먹어도 갈증을 풀어준 '배고울' 하동의 배

도시로 갔지만 결혼을 안 하는 딸 걱정을 같이 하며 아주머니와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다보니 이 부근이 온통 배 과수원으로 유명한 '만지 배밭'이란다. 봄에는 '하얀 배꽃길'이 되어 벚꽃길 만큼이나 아름다우니 꼭 들려 보라고 알려주신다. 녹차밭, 80만평이 넘는 황금들녘, 임금님 진상품이라는 대봉감, 만지 배밭까지 지리산과 섬진강이 내어주는 것들이 많기도 한 하동은 참으로 복 받은 땅이다.

물반 모래반인 하동포구가에 도착하니 강변을 따라 자전거 길과 산책로가 잘나있다. 산책로를 지나다보면 아름답디 나무들이 용트림을 하듯 꿈틀거리며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데 바로 하동 8경 중 하나라는 '하동 송림'이다. 조선 영조(1745년) 때 강바람과 모랫바람을 막으려고 조성한 소나무 숲인데, 지금은 이렇게 멋진 노송숲이 되어 섬진강 백사장 옆에서 하동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 주고 있다.



하동 8경 중 하나라는 오래된 노송숲 '하동 송림', 가을과 잘 어울린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오가는 '경전선' 기차가 코스모스와 잘 어울린다.

경전선 기차를 타고 간 북천역 코스모스 마을

하동읍은 기차역, 버스터미널, 도서관, 우체국, 전과사, 철물점, 큰 재래시장까지 있는 여행과 소박한 삶을 좋아하는 자전거 여행자와 잘 어울리는 머물고 싶은 동네다. 오일장날(매 2,7일)엔 큰 시장이 열릴 것 같은 하동군 시장통에 들어가 찐빵, 순대를 사먹다가 얘기를 나누게 된 젊은 시절 방랑 줌했다는 택시기사 아저씨는 가을날 하동에 왔으면 북천역 코스모스 마을에 가봐야 한단다. 택시 영업을 하려나 보다 예상했던 아저씨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뜻밖에 '경전선 기차'. 경상도(밀양 삼랑진)와 전라도(광주) 사이를 오간다 해서 이름 지어진 여행자들의 로망과 같은 열차를 하동읍에서 타

게 될 줄이야.

길지 않아 미니열차 같은 경전선 기차는 하동역에서 기적 소리를 내며 황천역, 양보역을 지나 누렇게 익은 가을 들판 사이를 천천히 달려 20여분 후 나와 애마 잔차를 북천역 코스모스 마을로 데려다 준다. 북천역 앞에도 오일장터(매 4,9일)가 있고, 역 주변과 철길 사이로 색동저고리를 입은 예쁜 코스모스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 있다. 자전거를 타고 북천역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조성돼 있는 코스모스 들판과 메밀꽃밭에 가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꽃밭 속에서 즐겁게 사진을 찍고 있다. 역 주변의 어떤 마을은 담벼락에 아예 코스모스 마을이라 써놓았고, 마을길을 따라 가면 하동 출신으로 소설 '산하', '지리산'을 쓴 이병주(1921~1992) 작가를 기리는 문학관도 있다.

봄이 오면 매화떼가 구름처럼 피어나고 4월에 길 양편으로 벚꽃이 끝 간 데 없이 펼쳐지는 섬진강을 봄의 강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깊어가는 가을날 찾아간 섬진강은 그 고즈넉하면 서도 서정적인 또 다른 얼굴로 여행자의 경탄을 이끌어낸다. 그 물길 따라 참 많은 것들이 깃들어 살고 있다. 지리산의 품처럼 깊고 화개, 하동의 오일장터처럼 넉넉하다. 🍎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 있는 길 ▶ 노래가 절로 나오는 마을이다.